

##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뉴스레터 제 224 호

2020 년 4 월 1 일

### - 목 차 -

#### ■ 협회 소식

1. Gender Equality Korea 온라인 플랫폼 런칭
2. UNGC 리더스 서밋 2020 행사 연기 안내 및 온라인 리더스 서밋 안내
3. UNGC, '코로나 19 로 인한 글로벌 위기 속 리더십' 온라인 특별 세션 초청
4. 2020 TGE (Target Gender Equality) 모집기간 연장
5. UNGC, KoSIF, WWF, Greenpeace 와 함께 기업 재생에너지 확대 프로그램 런칭

#### ■ 본부 소식

1. [UNGC 특별성명] 코로나 19 대응을 위한 기업 연대
2. 수자원 회복탄력성을 위한 전 세계 기업 리더들의 연대

#### ■ SDGs 소식

1. [SDGs 솔루션] 농작물 보호를 위한 무선 감시 시스템
2. [Goal 1, 2, 3, 4, 8, 12, 17] 국내 SDGs 우수이행 기업 사례 - CJ 제일제당
3. [SDG 미디어 존] 빈곤 해결을 위한 Hand in Hand 이니셔티브
  - 취 동유(Qu Dongyu) 세계식량농업기구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사무총장

## ■ UNGC 회원 뉴스

1. SH 공사, 유엔글로벌콤팩트 가입...사회적책임·윤리경영 강화
2. 태양광·풍력·연료전지... 신재생에너지 중심에 선 한수원
3. SK "사회적 가치가 곧 경제적 가치" 회사 정관까지 바꿨다
4. 중부발전, 음식물쓰레기 활용한 친환경 재생에너지 개발나서

## ■ CSR 뉴스

1. '물 쓰듯' 하는 한국...10년 후 서울은 물 기근 도시
2. 한부모노동자 육아휴직 급여 인상...통상임금 100% 반영
3. EU '원전' 지속가능한 금융에서 제외
4. "무급휴직에 권고사직도"...코로나 19 여파로 노동상담 잇따라

## ■ 회원사 안내

1. 신규가입회원
2. COP/COE 제출회원
3. 2019년도 연회비 미납 회원사 안내
4. UNGC 로고 사용정책
5. 한국협회 가입 안내

## 협회 소식

### 1. Gender Equality Korea 온라인 플랫폼 런칭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는 우리 기업의 성평등과 여성경쟁력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국내외 성평등 관련 정보 및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등을 포함한 온라인 플랫폼, '젠더 이퀄리티 코리아([www.gender-equality.or.kr](http://www.gender-equality.or.kr))를 런칭했습니다.



EU 및 각국 정부들이 여성의 노동참여 확대 및 차별완화를 위한 정책 및 제도를 점차 구체화, 의무화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정부도 최근 자산 총액 2 조원 이상 기업에 여성이사 최소 1 인 이상을 의무화하고, 공공기관과 상시 근로자 300 인 이상 기업에 성별임금격차 현황과 해소방안을 제출하도록 하는 등 공공 및 민간 영역에서의 여성대표성 제고 및 여성역량강화를 위한 제도적 노력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에 조직의 성평등 정책을 점검하고 여성역량 강화 및 다양성 제고 방안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국내 기업 및 기관들이 늘고 있습니다.

'젠더 이퀄리티 코리아'는 우리 기업 및 기관들이 국내외 기준에 맞는 성평등 정책을 수립하고, 여성대표성 향상과 여성역량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활동을 계획할 수 있도록 개발된 온라인 플랫폼으로 △ 기업 여성역량 자가진단 툴 △ UNGC 여성 이니셔티브(WEPs, TGE) △ 국내외 동향 △ 투자동향 △ 글로벌 가이드라인 △ 기업 사례 등 국내외 주요 기업과 여성 이슈 관련 정보를 한 곳에서 국문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였습니다.

# WEPs 성 격차 분석 틀

## WEPs 성 격차 분석 틀

유엔글로벌콤팩트(UNGC)와 유엔여성기구(UN Women)가 전세계 170여개 이상의 기업들의 의견을 받아 개발한 본 체크리스트는 기업의 성평등, 여성 역량강화에 현황에 대한 종합 분석을 제공하는 틀입니다.

직장, 시장 및 지역사회에 존재하는 성평등 정책 및 프로그램들을 진단하여 기업의 성평등 정책 방향성 설정을 돕기 위해 개발된 본 틀을 통해 기업은 여성역량강화에 대한 강점과 약점, 기회를 파악할 수 있으며, 자사의 성평등 정책과 프로그램을 한 단계 성장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 체크리스트 구성 (총18개 문항)

- 고위 경영진의 지지와 선언
- 여성 차별금지정책 및 고용평등제도
- 동일노동 동일임금
- 유급 출산휴가 양육지원 제도
- 폭력, 괴롭힘, 성착취
- 산업 안전 보건
- 공급망 내 여성 인권 신장 (포용적 공급망)
- 지역사회 내 여성인권 보호 및 증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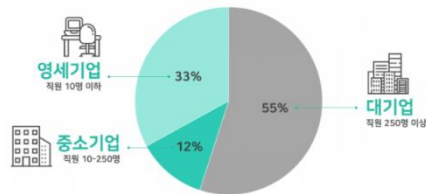
### 활용 방안

- 기업의 성평등 정책 및 전략 평가 제공
- 성별 격차, 기회 파악을 통한 사내 성평등 정책 접근 향상
- 성평등 관련 목표 설정 및 진전사항 파악
- 성평등 행동 촉진에 글로벌 성평등 자료 및 틀 활용
- 여성에 대한 투자로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에 기여

WEPs Tool 점수 분포도



기업규모별 활용 현황



지역별 활용 현황



산업별 활용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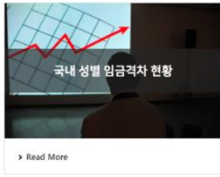


## WEPs 성 격차 분석 틀에 대한 정보 및 통계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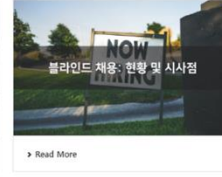
또한 성평등 정책 및 프로그램들을 진단해 강점, 약점, 기회 등을 파악할 수 있는 두 가지 기업 여성역량 자가진단 체크리스트를 제공합니다. 먼저, UNGC 와 UN 여성기구가 공동 발족한 여성역량강화원칙(Women Empowerment Principles, WEPs) 이니셔티브의 ‘WEPs 성격차 분석틀’이 이번 ‘젠더 이퀄리티 코리아’ 개설을 계기로 국문으로 제공됩니다. 체크리스트 응답 완료 즉시, 해당 기업의 현황에 대한 종합 분석을 제공되어 기업 내부 보고 자료로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전 세계 170 여 기업들의 의견을 받아 개발한 본 체크리스트는 현재 120 여개국 2,000 여 기업이 활용 중입니다.

‘WEPs 성격차 분석틀’의 보완적 기능을 하는 ‘한국 기업을 위한 심화 체크리스트’는 우리 기업들이 한국 실정에 맞는 성평등 정책을 구축하고 실행을 촉진할 수 있도록 UNGC 한국협회가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등에 기반해 개발하였으며, IFC 와 같은 국제기구 및 미국, 호주 등 정부 가이드라인이 질문 보강에 참고자료로 사용되었습니다.

#### 임금격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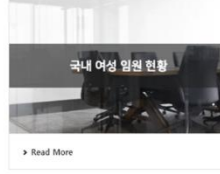
#### 여성 고용



#### 일 가정 양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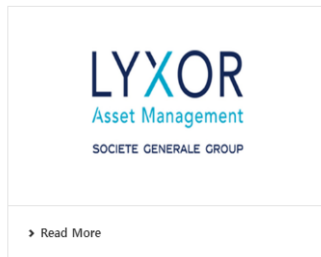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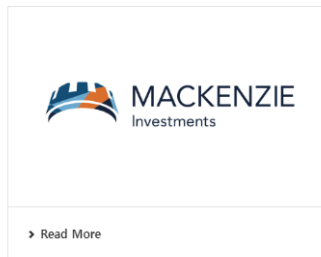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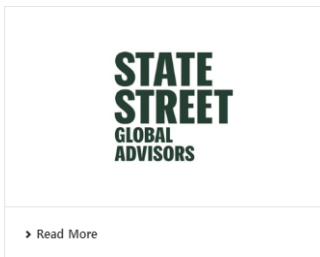
#### 여성기업 및 임원



### 국내 여성 관련 현황, 정책 및 제도를 파악할 수 있는 국내 동향 페이지

또한 국내외 동향에서는 임금격차, 일 가정 양립, 여성 고용, 여성기업 및 임원에 대한 국내외 현황 및 관련 신규 제도 등의 통계 및 리서치 자료가 제공되고 있으며, 이는 최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될 예정입니다.

#### 투자운용사



### 젠더 관점 투자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투자 동향 페이지

투자 동향에서는 최근 높아지고 있는 ESG 투자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주요 연기금과 투자운용사의 젠더 관점 투자 현황 및 젠더 투자 인덱스가 제공됩니다. 더불어 글로벌 가이드라인 메뉴에서는 기업 여성역량강화와 관련된 유용한 자료들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각국 기업들의 성평등 목표와 전략 등을 담은 사례를 볼 수 있으며, WEPS 및 TGE 참여를 통해 자사의 사례를 본 웹사이트에 게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EQUALITY FOR WOMEN MEANS PROGRESS FOR ALL”**

반기문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명예회장/제 8 대 유엔 사무총장은 “성평등은 우리 사회를 보다 긍정적이고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 중 하나”라며,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가 발족시킨 ‘젠더 이퀄리티 코리아’는 성평등을 위해 힘쓰는 기업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성평등 수준 진단 및 사례 공유를 통해 기업 내 다양성 및 여성역량강화를 위한 의미 있는 플랫폼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반기문 사무총장은 유엔 사무총장 재직 시, 성평등과 여성역량강화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며, 전 세계의 리더들에게 여성 리더십의 중요성을 끊임없이 강조한 바 있습니다. 유엔여성기구를 창설하고, 유엔 내 사무부총장을 포함한 여러 고위직에 여성들을 임명했습니다.

UNGC 한국 협회는 추후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참여 기업 및 기관의 결과를 모아 분석 리포트를 작성하고 참여기업들에게 제공할 계획이며, 개별 기업의 체크리스트 결과는 외부에 공개되지 않습니다. 한편, '젠더 이퀄리티 코리아' 온라인 플랫폼 개발은 UNGC 회원사인 아모레퍼시픽이 지원했습니다. 파트너십, 사례 게재 등 본 플랫폼 관련 문의 사항은 UNGC 한국협회 사무처(02-749-2149/50, [gckorea@globalcompact.kr](mailto:gckorea@globalcompact.kr))로연락주시기 바랍니다.

GEK 웹사이트 바로가기

## 2. UNGC 리더스 서밋 2020 뉴욕행사 연기 및 온라인 리더스 서밋 안내

유엔글로벌콤팩트는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COVID-19 바이러스로 인해 올해 6 월로 뉴욕에서 개최 예정이었던 UNGC 리더스 서밋 2020 행사를 2021 년 여름으로 연기하기로 최종 결정하였습니다. 내년으로 연기된 리더스 서밋 행사 일정은 현재 조율 중에 있으며, COVID-19 사태 경과에 따라 추후에 다시 안내 드릴 계획입니다.

올해 리더스 서밋 행사 등록을 이미 마친 기업 및 기관은 2021 년 리더스 서밋 행사에 자동 등록되기 때문에 별도의 환불 및 재등록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습니다. 등록 취소를 희망하실 경우, 이메일 ([leaderssummit@unglobalcompact.org](mailto:leaderssummit@unglobalcompact.org))로 신청 시, 2021 년 5 월 14 일까지 전액 환불될 예정입니다.

‘UNGC 리더스 서밋 2021’ 행사 등록 및 스폰서십 신청은 기존 리더스 서밋 웹사이트 또는 한국협회를 통해 가능하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기존 행사 날짜인 2020 년 6 월 15 - 16 일에는 UNGC 회원사, 정부, 시민사회 등과 함께 UNGC 20 주년을 축하하기 위한 온라인 리더스 서밋이 개최됩니다. 온라인 리더스 서밋은 실제 기획되었던 행사보다 더 큰 규모로, 더 많은 이들과 함께 진행될 것입니다. 기업 지속가능성 리더들과 CEO, 정부 및 UN 관계자들이 참여할 본 온라인 리더스 서밋은 가상 회의, 패널 토론, 라운드테이블, 전시회 및 네트워킹 세션으로 구성됩니다. 모든 이해관계자들은 모든 행사를 인원 제한없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리더스 서밋 참가신청**

리더스 서밋 행사 관련 문의 사항은 UNGC 한국협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3. UNGC, '코로나 19 로 인한 글로벌 위기 속 리더십' 온라인 특별 세션 초청



코로나 19 사태로 인해 세계가 위기에 빠져있는 가운데, 이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글로벌 커뮤니티를 존중, 보호, 협력하는 것은 기업시민의 책임 중 하나입니다.

유엔글로벌콤팩트는 코로나 19 팬데믹의 대응 수단으로써 유엔글로벌콤팩트의 핵심 가치인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 4대 분야, 10대 원칙을 다시금 강조하며, 코로나 19 확산 방지와 빠른 경제 회복을 위해 기업들의 공동 행동(Collective Action)을 촉구합니다.

이에 전 세계 기업, 정부, 국제기구, 시민사회를 소집하여 코로나 19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자 4월 2일 오후 11시(한국시간) '코로나 19 로 인한 글로벌 위기 속 리더십(New Leadership for a Global Crisis)'이라는 제목으로 온라인 특별 세션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녹화영상은 특별 세션 이후, UNGC 홈페이지 내 'Academy' 메뉴에서 제공됩니다. 회원사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 온라인 특별 세션 일정:

- 4월 2일 오후 11:00 (한국시간)

#### ■ 세부 내용:

- 코로나 19 에 대한 비즈니스 리더들의 대응 방안
- 코로나 19 와 유엔글로벌콤팩트 10대 원칙
- 정부와 기업간의 협력 방안
- 코로나 19 가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에 미치는 영향

#### ■ 발표자:

- Amina J Mohammed, UN 사무부총장
- Alan Jope, Unilever CEO
- Lise Kingo, 유엔글로벌콤팩트 사무총장

더 알아보기

신청



## 4. 2020 TGE (Target Gender Equality) 모집 기간 연장 (~4/30)

\* 코로나 19 등으로 인한 UNGC 본부의 런칭 일정 연기 및 기업의 TGE 모집 기간 요청으로 '2020 TGE' 프로그램을 한 달간 연장합니다. TGE 참여를 고려하고 있는 회원사에서는 참고 부탁드립니다.

**여성 비즈니스 리더십  
향상을 위한 기업의 야심찬 목표**

TGE (Target Gender Equality)는 UNGC 회원사가 여성역량강화원칙(WEPs)을 더욱 적극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이니셔티브입니다. TGE는 기업이 2030 의제의 SDGs 세부목표 5.5 달성에 기여하고, 나아가 기업 내 여성 임원 비율을 높이고, 여성 리더십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개요

TGE는 SDGs의 5 번째 목표(성평등)의 세부 목표(5.5)인 '여성의 사회적 참여와 리더십에 대한 동등한 기회보장'을 증진하기 위한 촉진 프로그램입니다. ▲WEPs 성 격차 분석 툴을 통한 자사 여성 정책 분석, ▲역량 강화 워크숍, ▲동료 (peer-to-peer) 학습, ▲이해관계자와의 대화를 통해 기업이 여성 임원 비율을 높이고, 여성 리더십을 강화하기 위한 야심찬 목표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참여 지역협회

대한민국을 포함한 다음의 UNGC 지역협회가 TGE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 레바논
- 멕시코
- 방글라데시
- 브라질
- 스리랑카
- 스페인
- 영국
- 인도
- 인도네시아
- 일본
- 칠레
- 케냐
- 코스타리카
- 크로아티아
- 터키
- 파라과이
- 포르투갈
- 폴란드
- 호주

### 혜택

- 실질적이면서도 야심찬 성평등 목표를 설정하고, 직원, 투자자 및 기타 이해관계자에게 해당 목표에 대한 지지 약속과 행동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 WEPs 성 격차 분석 툴 사용을 통해 자사의 성평등 현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 개별 국가 상황에 맞는 성평등 학습 기회를 제공합니다.
- UN 파트너, 전문가, 동종업계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성평등 전략을 수립하고, 불평등을 조장하는 이슈에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 성공적인 비즈니스와 지속가능성 향상, SDGs 달성에 기여하는 자사의 여성 리더십 사례를 소개하고 홍보합니다.

### 자격 요건

-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다음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현재 UNGC 회원사이거나 가입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 여성 임원 비율을 높이고 여성 리더십을 강화하기 위한 높은 수준의 목표를 설정하고 행동을 강화할 것을 약속해야 합니다.
  - 프로그램 활동과 이벤트에 참여할 두 명의 실무진과 프로그램 지침을 준수하고 고위급 행사에 참여할 한 명의 임원을 반드시 지정해야 합니다.

### 일정

- 기업 등록: 2020년 2월 - 3월
- 프로그램 시작: 2020년 4월
- 프로그램 종료: 2021년 3월

### UNGC 가입 및 TGE 참여를 원하시나요?

가입과 관련된 문의 사항은 UNGC 한국협회 여직원, 공유진 연구원 (02.749.2149/2150)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 Q: Target Gender Equality 란 무엇인가요?

A: Target Gender Equality (이하 TGE)는 UNGC 회원사의 여성 임원 비율 향상과 여성 리더십 강화를 목표로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본 프로그램은 기업들이 모든 영역에서 성평등 문화를 확산시킬 수 있도록 장려합니다. 2020년 TGE 프로그램은 임원 내 여성 리더십 강화에 집중할 예정이며, 2021년에는 공급망 내 여성 기업과의 협력 강화와 같은 여성 역량 강화 프로젝트로 확장될 예정입니다. 한국을 포함하는 총 20곳의 UNGC 지역협회가 TGE에 참여하고 있으며 각 국가 별 여성역량강화를 위한 기업 행동 장려를 목표로 합니다.

### Q: TGE는 기업의 지속가능성 향상과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에 어떻게 도움이 되나요?

A: TGE를 통해 UNGC 회원사는 자사의 성평등 강화 정책을 평가하고, 조직 내 성평등을 강화하기 위한 목표를 설정하며 이를 바탕으로 이행 계획을 설정합니다. TGE 참여 회원사는 다음과 같은 지침을 준수해야 합니다.

- UNGC 10대 원칙, 특히 인권 관련 원칙 1(기업은 국제적으로 선언된 인권 보호를 지지하고 존중해야 한다)과 노동 관련 원칙 6(고용 및 업무에서 차별을 철폐한다)에 대한 책임과 이행을 보여줘야 합니다.
- ‘UN 기업과 인권 이행 지침(UN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을 준수해야 합니다.
  - 최근 유엔인권이사회에 제출된 보고서에서는 다국적 기업과 그 외 모든 부문의 기업들이 여성의 사회 참여와 리더십에 대한 동등한 기회 보장 제공을 목표로 설정하고, 목표 이행에 있어 여성역량강화원칙 성 격차 분석 툴 (WEPs Gender Gap Analysis Tool)을 사용하도록 권고했습니다.
- 여성역량강화원칙(WEPs)을 지지하고 참여해야 합니다.
  - 여성역량강화원칙(WEPs)은 직장, 업계 및 지역사회에서의 여성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만들어진 UNGC와 UN 여성기구(UN WOMEN)의 공동 이니셔티브입니다. WEPs는 무엇보다도, 기업 내 여성의 의사결정 참여 비율을 30% 이상으로 높일 수 있도록 장려합니다. 현재 2,000명 이상의 글로벌 기업 리더들이 WEPs CEO 지지 서명서에 참여했습니다.
- 2030 지속가능발전목표 중 목표 5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직접적으로 지원할 것을 약속해야 합니다.
  - 구체적으로, 목표 5.5는 2030년까지 여성이 경제 활동을 포함한 모든 영역에서 의사 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와 리더십에 대한 동등한 기회를 보장할 것을 요구합니다.
- 지속가능발전목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야 합니다.
  - 연구에 따르면, 여성 리더십과 경제적 역량 강화는 교육 (목표 4), 건강 (목표 3), 빈곤 퇴치 (목표 1)와 기후 행동 (목표 13) 등의 다양한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에 기여합니다.
-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성과를 강화해야 합니다.
  - 국제 금융공사(IFC)에 따르면, 여성 리더십과 ESG 성과 사이에는 유의미한 관계가 있습니다.

**Q: TGE 와 여성역량강화원칙(WEPs)은 어떤 연관성이 있나요?**

A: 여성역량강화원칙(WEPs) 은 UNGC 와 UN Women 이 2010 년에 공동으로 발족한 이니셔티브입니다. WEPs 는 기업이 직장, 산업 및 지역사회에서 자발적으로 성평등과 여성 경쟁력 강화를 추구하는 기업들에게 지침 및 이행 방안을 제공합니다. WEPs 에 참여하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WEPs CEO 지지 성명서는 기업 지도자들의 성평등에 대한 지지 약속과 행동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TGE 는 UNGC 회원사를 대상으로 한 성평등 촉진 프로그램으로서, 기업이 WEPs 의 핵심 요소인 '여성 임원 비율 향상과 여성 리더십 강화'를 위한 목표를 설정하고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또한, TGE 참여 회원사는 WEPs Tool 을 활용하여 자사의 성평등 정책 현황과 자사의 성평등 강화 방향성에 대한 이해를 얻을 수 있습니다.

**Q: WEPs CEO 지지 성명서를 작성한 기업은 TGE 에 참여할 수 있나요?**

A: WEPs 에 참여하는 기업도 TGE 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TGE 는 UNGC 회원사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프로그램입니다. 아직 UNGC 회원사가 아닌 경우, 가입절차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UNGC 회원가입 안내]

**Q: 여성역량강화원칙 성 격차 분석 툴 (WEPs Gender Gap Analysis Tool, WEPs Tool)은 무엇인가요?**

A: WEPs Tool 은 기업의 성평등, 여성역량강화 현황에 대한 종합 분석을 제공하는 툴입니다. 사용자 중심의 맞춤형 온라인 플랫폼으로서, 기업이 성평등 강화 정책과 프로그램을 평가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강점과 약점 및 기회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합니다. WEPs Tool 은 UNGC 가 운영하며 UN Women, IDB 다자 투자 기금 및 IDB Invest 와 함께 개발하였습니다. WEPs Tool 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TGE 프로그램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A: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 **현황 분석:** WEPs Tool 을 활용해 기업이 목표를 설정하는데 필요한 정책과 프로그램을 평가하고, 강점과 약점을 파악하여 향후 기업 목표를 설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 **역량 강화:** 전문가와 TGE 참여기업이 함께하는 워크숍은 기업이 여성 임원 비율 향상과 여성 리더십을 강화하는 데 있어 야심찬 목표를 설정하는데 기여합니다. 프로그램은 각 국가 별 특성을 고려하여 설계되며, 기업의 리더십이 고려할 수 있는 맞춤 이행 계획을 설정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이해관계자와의 대화:** TGE 는 기업, 정부, 투자자 및 기타 이해 관계자 간의 심층적인 대화의 장을 제공합니다. 대화를 통해 기업은 성 불평등을 조장하는 장벽을 허물고, 성평등 기업문화 조성 및 여성 리더십 강화를 위해 기업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구체적 행동 방안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 **공개 지지:** TGE 참여기업은 여성 리더십을 강화를 위한 UNGC 의 미션에 동참할 수 있으며, 웹, 소셜미디어, UNGC 뉴스레터등을 통해 다양한 소식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행사:** UNGC 행사는 TGE 의 성과를 알리고 목표 달성을 촉진하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일년 내내 진행됩니다. 관련 행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 2020 여성역량강화원칙 연례 포럼(2020 WEPs Annual Forum, 2020. 3. 20)
- UNGC 런칭 20주년 리더스 서밋(UNGC Leaders Summit 2020, 2020. 6. 15-16)
- 유엔 총회 주간(The 75th session of the UN General Assembly Week, 2020. 9. 15-30)
- Making Global Goals Local Business(MGGLB, 2020. 9)

Q: TGE 활동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A: 주요 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참가 신청: 2020년 2월 17일 - 3월 말
- 활동 기간: 2020년 4월
- 프로그램 종료: 2021년 3월

자세한 활동 일정에 대해서는 UNGC 한국협회 사무처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Q: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기업이 얻을 수 있는 혜택은 무엇인가요?

A: TGE 참여기업은 다양한 연구 자료, 파트너와 전문가 간의 네트워크와 전문 지식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TGE 참여는 직원, 투자자 및 기타 이해 관계자에게 성평등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귀사의 노력과 헌신을 알리고, 잠재적 여성 리더를 파악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Q: 기업에서는 누가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하나요? 프로그램 참여 직원에 대한 자격 기준이 있나요?

- 두 명의 실무진을 'TGE 담당자(TGE Representative)'로 지정
  - 대표 실무진은 TGE 관련 회의, 이벤트 참석 및 TGE 목표 달성을 위한 직원 간의 협력을 주도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 참여기업은 대표 실무진을 지정할 때 실무진의 개인 프로필(예, 남성/여성)과, 조직 내 활동 등 다양한 사안들을 고려하시길 바랍니다.
- 한 명의 임원을 'TGE 앰배서더(Ambassador)'로 지정
  - TGE 고위급 행사에 참여할 TGE 앰배서더는 기업의 CEO 와 직접 소통할 수 있어야 하며, 기업의 CEO 가 TGE 앰배서더로 지정될 수도 있습니다.

Q: 참여하는데 추가 비용이 발생하나요?

A: TGE 프로그램은 무료로 진행 됩니다.

Q: 얼마나 많은 국가들이 TGE 에 참여하고 있나요?

A: 본 프로그램은 현재 총 20 개의 UNGC 지역 협회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호주, 방글라데시, 브라질, 칠레, 코스타리카, 크로아티아,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케냐, 레바논, 멕시코, 파라과이, 포르투갈, 폴란드, 스페인, 스리랑카, 터키, 영국

Q: 성평등 강화를 위한 정책을 이제 막 시작하려는 기업도 TGE 참여가 가능한가요?

A: 네, 참여 가능합니다. TGE 프로그램에 대한 꾸준하고 지속적인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Q: TGE 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현재 여성리더십 강화를 위한 목표가 있어야 하나요?

A: 아니요. 현재 목표 설정을 하고 있지 않더라도, TGE 참여를 통해 목표 설정에 필요한 정보, 역량강화 프로그램 및 네트워크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Q: 이미 여성 임원 비율을 높이고 여성 리더십을 강화하기 위한 목표를 실행하고 있는 기업도 TGE 에 참여할 수 있나요?

A: 네. 본 프로그램을 통해 기업은 기존에 설정한 목표를 빠르게 촉진하기 위한 전략을 구상함과 동시에, 글로벌 목표 및 이해관계자의 기대에 보다 잘 부합할 수 있는 방향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TGE 에 참여한 기업에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고 진행 상황을 보여주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야심찬 목표를 갖고 보다 더 활발하게 실천하고 있는 기업은 소규모 전문가와 주요 리드 기업으로 이루어진 TGE Global Coalition 에 초대받아, 프로그램 자료 개발에 참여할 수 있으며, TGE 활동에 도움이 될 전문 지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Q: TGE 참여 등록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2020 TGE 참여 기업 신청서를 작성하여 UNGC 한국협회 사무처로 송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록이 완료된 기업에는 별도의 안내를 드릴 예정입니다.

TGE 더 알아보기

참가신청서

## 5. UNGC, KoSIF, WWF, Greenpeace 와 함께 기업 재생에너지 확대 프로그램 런칭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는 지구온도 상승을 1.5 °C 로 제한하는데 있어 핵심적입니다. 그러나 높아지고 있는 재생에너지 활용 확대에 대한 국내 기업의 기대에도,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기업이 자체적으로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것이 제한적인 실정입니다. 이에 UNGC 한국협회는 KoSIF, WWF Korea, Greenpeace 와 함께 기업의 재생에너지 공급원을 다양화하고, 자발적인 재생에너지 사용을 확대해 지구온도 상승을 1.5 °C 로 제한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새로운 기업 재생에너지 확대 프로그램을 런칭합니다.

본 프로그램은 다음의 목표를 가지고 있으며, 간략한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목표 1. 비즈니스 얼라이언스(가제) 구축

- 참여 기업 모집 및 발족 (5 월 말 예정)

\* 비즈니스 얼라이언스란? 녹색요금제 및 기업 PPA 를 비롯하여 국내 재생에너지 구매 방안 도입을 촉진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관련 국내외 동향과 제도 개선 및 이행 로드맵 수립을 위한 정보 공유 및 교육 플랫폼

### 목표 2. 인식제고 및 역량강화

- 실무자 대상 워크숍 (분기 별 1 회)
- 경영진 대상 재생에너지 포럼 (1 회)
- 가이드라인 발간 (얼라이언스 참여 기업 대상 배포)

### 목표 3. 재생에너지 조달을 위한 정책 환경 구축 및 법·제도 개선

- 정부, 국회 및 이해관계자 정책 대화 추진
- 이해관계자 서베이 진행

#### 목표 4. 기업 재생에너지 목표 선언 지원

- 각 기업별 미팅을 통한 재생에너지 목표 설정 지원

본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문의사항은 UNGC 한국협회 사무처 (02-749-2149/2150, gckorea@globalcompact.kr) 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본부 소식

### 1. [UNGC 특별성명] 코로나 19 대응을 위한 기업 연대



- 기업들의 코로나 19 팬데믹 대응 수단으로써 유엔글로벌콤팩트 10대 원칙 강조
- 코로나 19 확산을 막고, 근로자를 지원하며, 빠른 경제 회복을 위한 비즈니스 연속성을 촉진하기 위해 비즈니스 커뮤니티에 공동 행동 요청



United Nations  
Global Compact



World Health  
Organization

재정적 지원: 세계보건기구(WHO)와 그 파트너들을 위한 [코로나 19 연대 대응 기금](#)(Covid-19 Solidarity Response Fund)에 기부하여 세계 여러 국가들, 특히 가장 심각한 상황에 처한 국가들이 코로나바이러스를 예방, 검사 및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연대: 유엔글로벌콤팩트의 [10대 원칙](#)에 따라, 그리고 국제협력의 정신에 따라, 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하여 글로벌 커뮤니티를 존중, 보호, 협력하는 것은 기업시민들의 책임입니다.



## 유엔글로벌콤팩트 10대 원칙에 기반한 코로나 19 대응

### 인권

- 코로나 19 대응 및 지원책에 모든 사람들이 인종, 피부색, 장애, 나이, 성별, 종교, 정치 성향 및 기타 의견, 국적 및 계층, 재산, 출생, 성적 지향, 성 정체성 등과 관계없이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해주시요.
- 가장 소외되고 취약한 계층의 요구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 노동

- 직원 및 비즈니스 파트너, 특히 중소기업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고려하며, 유연성과 공감, 그리고 연대를 기반으로 대응해주시요. 재정적 손실을 줄이려는 노력이 근로자의 권리와 복지를 희생시켜서는 안됩니다.
- 탄력근무 중에도 소득과 혜택이 안정적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요. 누군가 질병에 걸리거나 격리가 되어, 혹은 아픈 가족 구성원을 돌보느라 출근하지 못해 급여를 받지 못하고 일자리를 잃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일을 방지하기 위해, 특히 돌봄 노동의 책임을 짊어지고 있는 여성 근로자나 저임금, 계약직, 사회적 안전망에 의한 구제를 보장받지 못하는 불안정한 고용상황에 놓인 근로자들에게 지속적인 소득을 보장해주시요.
- 현재 효력을 가진 계약들을 최대한 존중하고, 이행해주시요. 서비스 제공 및 납품 할당량에 대해 융통성 있게 대응함으로써 비즈니스 연속성을 유지하고, 동시에 글로벌 공급망에서의 양질의 작업 환경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공급자들과의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 개인 위생(깨끗한 손 씻기 등), 주변 환경(물품 및 시설 깨끗이 소독하기), 업무 관리(최대한의 재택 근무를 통한 대인 접촉 줄이기) 등을 통해 직원들이 코로나바이러스에 노출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이를 통해 안전한 작업 환경을 보장하는 바이러스 예방 원칙을 시행해주시요.

### 환경

- 재택 근무나 가상 회의 등을 장려함으로써, 통근 및 출장으로 인한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재택 근무 및 가상 회의가 탄소발자국에 주는 긍정적 영향을 측정하여, 현 상황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보십시오.

## 반부패

- 포용적이며 투명한 대응책들과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신뢰를 형성하십시오.
- 귀사의 제품 및 서비스가 윤리적으로 판매 및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십시오.

## 추가 지침: 경제 및 금융

- 기업 및 CFO들은 은행 및 투자자들과 협력하여 비즈니스 연속성을 보장함으로써 코로나 19가 보건, 식품, 물류 등과 같은 필수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 은행들은 현재 가장 심각한 상황에 놓인 사람들과 필수품을 제공하는 기업군에게 예외적인 신용 한도를 제공하고, 기존 신용 제품에 대한 상환 조건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 상업 및 개발 은행은 자선 및 기부 기금을 활용하여 혼합 금융상품을 구조화하고 필수적인 예방 및 완화 활동을 지원하는 기업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 보험 회사는 코로나19의 영향을 받는 직원 및 기타 근로자에게 신속하고 원활하게 단기 장애 및 실업 급여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의료 및 의료 보험 회사는 코로나 19 관련 중환자들의 재정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협력할 수 있습니다.
- 투자자는 필수 제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을 위해 우수 고정 수입 제품에 대한 일시적 상환 조건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 임팩트 투자자는 필수적인 예방 및 완화 활동을 지원하는 기업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원문 보기](#)

## 2. 수자원 회복탄력성을 위한 전 세계 기업 리더들의 연대



글로벌 기업 7 개사의 CEO, 2050년까지 물 복원 노력에 기여하는  
Water Resilience Coalition에 함께하며 공동행동 펼칠 것을 약속

유엔글로벌콤팩트의 이니셔티브 중 하나인 ‘[CEO 수자원관리 책무](#)’는 여러 글로벌 기업들과 파트너십을 맺어 산업 및 CEO 주도형 이니셔티브 ‘Water Resilience Coalition’을 새롭게 런칭했습니다. 해당 이니셔티브는 물 부족 지역에서의 공동 행동과 더불어 측정 가능하며 도전적인 목표들을 세워 세계의 담수 자원을 보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AB InBev, Diageo, Dow Inc., Ecolab, Gap Inc., Microsoft, 그리고 PVH Corp의 7 개사가 ‘CEO 수자원관리 책무’와 함께 담수 보호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니셔티브를 이끌어 나갈 위 7 개사를 비롯해, The Coca-Cola Company, HEINEKEN, Levi Strauss & Co., Woolworths의 4 개사 또한 회원으로서 공동 행동과 담수 보호 노력에 함께할 것을 서약하며, 여타 기업들에게 [동참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기후변화를 포함한 여러 전세계적 위기들이 우리 앞에 놓여있는 가운데, 가장 시급한 문제 중 하나는 바로 세계적인 담수 자원 부족 현상입니다. 오늘날 전 세계 25 퍼센트 이상의 인구가 물 부족 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며, 예상 수요량에 비추어 보았을 때 향후 10년 간 담수 공급량이 세계적으로 56% 부족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다가오는 수자원 부족은 우리의 생태계뿐만 아니라 지역 공동체, 기업 활동, 나아가 세계 경제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리세 킹고(Lise Kingo) 유엔글로벌콤팩트 사무총장은 “2020년은 ‘유엔 행동의 10년’ 시작점인 동시에 우리의 미래를 위한 기업들의 실질적이고 측정 가능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 밝히며, “비즈니스 리더들이 함께 행동하여 우리 앞에 놓인 위기들을 함께 해결해나가는 ‘Water Resilience Coalition’이 바로 그 노력의 모범 사례”라고 말했습니다.

민간 부문은 담수 자원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담수 자원이 사회와 산업의 수요를 감당할 만큼 지속가능하고 회복탄력적이며 충분한지의 여부에 큰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Water

Resilience Coalition 은 지역 사회, 경제, 산업, 그리고 장기적인 경제 성장에 위협 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세계 곳곳의 물 부족 지역들을 우선적으로 택하여, 해당 지역들을 복원하는 작업을 시작할 것입니다. 협력, 기반시설 투자, 혁신과 정책 옹호를 통해, 그리고 공급망 내 파트너 및 NGO 와 함께함으로써 기업들은 물 부족 지역의 복원을 이끌어 나갈 수 있습니다.

Water Resilience Coalition 에 참여하는 기업들은 2050 년까지 아래 세 가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자사의 기업활동영역 중 개선이 필요한 곳에 자체적으로 투자하고, 이니셔티브에 참여하는 타 기업들과 공동행동에 함께하겠다는 약속을 담은 서약서에 서명하게 됩니다.

- **유효한 물 복원 노력:** 물 부족 지역에서 담수 자원의 가용성, 접근성 및 품질에 초점을 맞추어 측정 가능한 물 복원 노력을 전개해주세요. '유효한' 물 복원 노력이란 수자원 사용량보다 복원량이 더 높은 것을 의미합니다.
- **물 복원 가치사슬:** 글로벌 밸류 체인 내 물 복원 모범사례들을 지원하기 위한 전략을 개발하고 실행해주세요.
- **글로벌 리더십:** 공공 및 기업 차원의 홍보를 통해 수자원 복원에 있어 더욱 담대한 노력을 전개하고, 더 많은 기업과 산업군이 Water Resilience Coalition 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세요.

'Water Resilience Coalition'은 세계 물의 날을 맞아 글로벌 기후와 물 관련 목표 달성을 위해 힘을 합쳐 나아가야 함을 강조한 UN [2020 세계 물 개발 보고서를](#) 계승하며 런칭되었습니다. 해당 보고서는 열악한 물 관리와 기후 변화 악화 사이의 분명한 연관성을 강조합니다.

Water Resilience Coalition 은 세계자원연구소, Water.org, 국제 자연보호협회 등 여러 기관과 협력하여 수자원 탄력회복성의 미래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Water Resilience Coalition 더 알아보기

CEO 수자원 관리 책무 더 알아보기

## Water Resilience Coalition 공동 창립자, 회원사, 그리고 후원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 Co-Founders



David MacLennan, Chief Executive Officer, Cargill



Ivan Menezes, Chief Executive, Diageo



Jim Fitterling, Chief Executive Officer, Dow Inc.



Douglas M. Baker, Jr., Chairman of the Board & Chief Executive Officer, Ecolab



Sonia Syngal, CEO, Gap Inc.



Brad Smith, President, Microsoft



Emanuel Chirico, Chairman & Chief Executive Officer, PVH Corp.

### 공동 창립자

전 세계적 규모의 양조 회사로서, 물은 우리의 사업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복지를 위해서도 필수적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궁극적 목표는 업계 최고의 효율성을 추구하고, 새로운 혁신 가능성에 투자하며, 여러 사람들과 함께 협력함으로써 우리의 기업활동에 연관된 지역들의 수자원을 눈에 띄게 개선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발전이 자랑스럽지만, 동시에 세계 물 위기가 어느 한 조직이 홀로 해결할 수 있는 규모가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선 산업군 전반의 기업들과 협력하여, 지역 사회 내 수자원 접근성과 수질을 모두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Water Resilience Coalition 은 이러한 여정에 있어 여러 주요 기업들과 함께 협력하고 임팩트를 낼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 Carlos Brito, CEO, Anheuser-Busch InBev

물은 우리 시대 가장 시급한 기후 및 지역사회 안건 중 하나이며, 우리 모두는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지금 당장 행동을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는 머뭇거릴 시간이 없습니다. 민간 부문을 구성하고 있는 우리 기업들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하며, 여러 지식과 최선의 솔루션 등을 기업 간에 공유하고 각자의 공급망 내에서 의미 있는 조치들을 취하기 위해 더욱 협력해야 합니다. Water Resilience Coalition 은 전 세계 사람들의 삶에 측정 가능한 변화를 제공하고, 우리 모두가 협력할 수 있도록 돕는 특별한 플랫폼이 되어줄 것입니다.

- Ivan Menezes, CEO, Diageo

기후 위기가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면서, 우리의 담수자원에 기후변화가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습니다. Dow 와 같은 기업들은 전 세계의 제조 시설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담수 자원에 크게 의존하게 됩니다. 우리는 사회 내 다른 부문의 구성원들과 협력하여 해결책을 찾고, 우리의 자원과 노력을 결합하여 지속 가능하고 회복탄력성 있는 담수 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책임과 기회를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 *Jim Fitterling, CEO, Dow Inc.*

세계는 물 위기를 포함한 여러 전례 없는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기업들은 미래 세대를 위해 수자원을 보존하는 노력에 빠르게 참여해야 합니다. Water Resilience Coalition 의 노력은 우리 기업들의 운영 및 공급망에 실질적인 임팩트를 주고, 기업 및 정부, 그리고 지역 사회가 힘을 합쳐 글로벌 위기에 함께 대응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 *Douglas M. Baker, Jr., Ecolab 회장 및 CEO, Water Resilience Coalition 공동 창립자*

우리는 Water Resilience Coalition 의 창립 멤버가 될 수 있음에 매우 자랑스럽습니다. Water Resilience Coalition 은 물 관리에 대한 포부와 리더십의 기준을 높이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사회와 사람들을 위해 수자원을 개선하는 중요한 작업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도록 독려할 목적으로 창설되었습니다. 이에 있어 PVH 는 자사의 Forward Fashion 책임 전략을 통해 큰 진전을 보였으며, 더 나은 내일을 위해 기후위기를 해결하고자 하는 우리의 집단적 노력과 이니셔티브가 물 보호를 위한 전세계적인 참여를 이끌어내는 데에 기여하길 소망합니다.

- *Emanuel Chirico, Chairman & Chief Executive Officer, PVH Corp.*

## 회원사

*Coca-Cola Company* 는 CEO 수자원관리 책무에 함께하게 되어 기쁩니다. 우리는 안전한 수자원의 영구적인 가용성이 미래의 경제 성장뿐만 아니라 인간의 복지와 생태계 건강에 필수적이라는 것을 압니다. 우리가 이용하는 주요 담수 유역에 협력적으로 투자하고, 다중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기관들을 지원함으로써 수자원 보호에 대한 우리의 의욕과 포부를 키워가야 합니다.

- *James Quincy, Chairman and Chief Executive Officer, The Coca-Cola Company*

우리는 모두 수자원에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물은 너무도 귀중하나, 동시에 평가절하되고 있는 자원입니다. 현재 HEINEKEN 은 수자원 보호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다양한 산업군의 더 많은 기업들이 Water Resilience Coalition 에 함께하고, 서약서에 서명하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물을 지켜냄으로써 인간, 자연, 그리고 경제가 지속적으로 번영할 수 있어야 합니다.

- *Jean-François van Boxmeer, Chairman Executive Board and Chief Executive Officer, HEINEKEN*

## 후원

지금 바로 힘을 합칠 시기입니다. 어려운 과정이겠지만, 필연적인 첫 단계는 바로 어느 조직도 혼자서는 해낼 수 없다는 것을 자각하는 것입니다. 수자원 위기와 기후 변화에 성공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대기업을 포함한 모든 회사가 생산 및 소비 과정이 수자원 고갈로 이어지지 않도록 그들 각자의 비즈니스 모델과 제품, 그리고 관행들을 재정비해야 합니다.

*- Gilbert F. Hounbo, Chair of UN-Water & President, International Fund for Agricultural Development*

Water.org 는 이니셔티브 창립자들을 후원할 수 있음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우리는 물 부족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 나선 공동 창립 기업들에게, 시민 사회와 산업의 힘을 한데 모으려는 Water Resilience Coalition 에게, 그리고 깨끗한 물의 부족으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 물 보호에 앞장서는 모습을 보여준 회원사들에게 진심 어린 박수를 보냅니다. 수자원 위기는 우리의 집단적인 협력 및 노력과 전문적인 지식을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습니다. 물에 대한 우리의 새로운 접근은 삶의 모든 측면을 연결시켜, 우리의 위기를 전 세계 가정의 건강 증진, 사람들의 교육과 노동 장려, 건강한 경제 건설 등의 새로운 가능성으로 바꿔 줄 것입니다.

*- Jennifer Tisdal Schorsch, President, Water.org*

# SDGs 소식

## 1. [SDGs 솔루션] 농작물 보호를 위한 무선 감시 시스템



*Kongskilde의 간단하고, 똑똑하며 강력한 Webstech 기술은 수확 후 저장된 자원의 온도 및 상대적 습도를 모니터링하여 농산물이 위험에 처했을 때 농부에게 경고합니다.*

Webstech는 농산물 비축기지에 온도 및 습도 센서를 설치하여 식품 손실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본 기술이 제공하는 정보는 불필요한 식품 손실을 줄여 농업 생산성과 품질을 높이고 있으며 이러한 기술은 농가 수익 창출에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본 시스템은 농산물 비축기지에 기지국과 연결된 지능형 센서를 설치하여 작동합니다. 보관된 농산물의 온도가 너무 높아지면, 농부들은 이메일이나 SMS를 통해 경고 메시지를 받아 식품 손실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Webstech는 농부들이 저장된 옥수수나 감자와 같은 농산물을 돌볼 수 있도록 도와주며, 골프 코스의 잔디 품질을 유지하는 등 다른 분야에서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 왜 Webstech의 기술에 주목해야 할까요?

세계자원연구소에 따르면, [매년 전 세계에서 생산되는 식품의 24%](#)가 소비되기 전에 손실되거나 폐기되면서 낭비되고 있습니다. 이 중 [약 절반은 생산, 취급 및 보관 과정에서 손실](#)되고 있습니다. Webstech는 농산물이 비축기지에 보관된 후에도 감시할 수 있는 기술을 만들었습니다. 본 솔루션은 식품 손실 때문에 발생하는 비용에 비하면 적은 투자입니다.



## 이 솔루션이 다루는 지속가능발전목표



### 기아의 종식

소비되기 전 발생하는 식품 손실 중 약 절반이 생산, 취급 및 보관 과정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본 솔루션은 세계 식량 안보에 기여할 것입니다.



### 지속가능한 에너지

Webstech 에 따르면, 본 기술은 식품 부패를 예방하기 위해 발생하는 에너지 비용의 최대 40%를 절약하여 농업 에너지 효율을 크게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혁신과 인프라 구축

Webstech 의 솔루션을 구축하는 데 드는 비용은 식품 손실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손실규모에 비하면 매우 낮으므로 농업 산업의 효율성을 높입니다.

[자세히 보기](#)

## 2. [Goal 1, 2, 3, 4, 8, 12, 17] 국내 SDGs 우수이행 기업 사례 - CJ 제일제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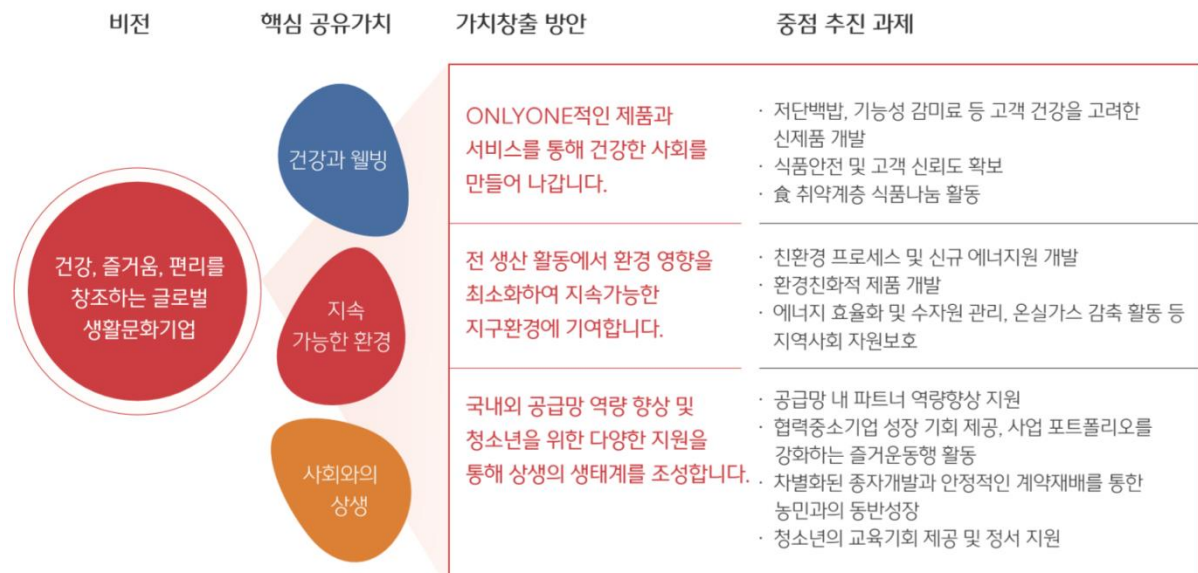


UNGC 가입일: 2014년 05월 13일

### 1. 기업 지속가능경영 이행 전략 및 현황

CJ 제일제당은 기업경영을 통해 국가와 사회에 기여한다는 ‘사업보국(事業報國)’의 창업이념을 기반으로 새롭게 정립한 CJ 제일제당만의 CSV를 기업의 핵심역량으로 활용하여 새로운 사회적 가치를 창출 함으로써 사회와 함께 지속가능한 성장을 달성하고자 합니다. 특히 2013년 CJ 그룹의 CSV 선언에 따라 CJ 제일제당은 기존의 사회가치 경영을 더욱 발전시키는 한편, CJ가 진출한 국가와 지역사회에 차별화된 공유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CJ 제일제당은 당사의 비전과 미션을 이루는데 CSV를 가장 기본적인 경영 원칙으로 삼고 있으며, 준법경영, 윤리경영, 안전경영 등 Compliance를 기반으로 ‘사회와의 상생’, ‘지속가능한 환경’ 및 ‘건강 및 웰빙’ 등 새로운 공유가치를 창출함으로써 국가와 사회에 기여하는 ‘건강, 즐거움, 편리를 창조하는 글로벌 생활문화기업’의 역할을 실천하고자 합니다.



## 2. SDGs 전략 및 사례

### SDGs 이행 노력

CJ 제일제당은 기업 본연의 경영활동에서 이어지는 체계적인 사회가치경영을 통해 17 개의 지속가능개발목표 (SDGs)를 이행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가치사슬 내에서 비즈니스 핵심 전략과 SDGs 를 연계한 CSV 사업을 통합하여 새로운 성장기회를 발견하고, 사회적 이슈의 해결 과정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CJ 제일제당은 지속적인 이행 노력은 물론 글로벌 파트너와의 협력을 통해 전 지구적 도전과제의 달성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b>1 NO POVERTY</b> 빈곤 퇴치	<b>2 ZERO HUNGER</b> 기아 종식	<b>3 GOOD HEALTH AND WELL BEING</b> 건강과 웰빙	<b>4 QUALITY EDUCATION</b> 양질의 교육	<b>5 GENDER EQUALITY</b> 양성 평등	<b>6 CLEAN WATER AND SANITATION</b> 식수 및 위생시설 접근 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베트남 농촌개발 CSV 사업</li> <li>푸드뱅크</li> <li>CJ브리딩어</li> <li>CJ도너스캠프</li> <li>잔잔잔 프로젝트 (미혼 한부모 가정 반찬 지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베트남 농촌개발 CSV 사업</li> <li>푸드뱅크</li> <li>CJ브리딩어</li> <li>CJ도너스캠프</li> <li>잔잔잔 프로젝트(미혼 한부모 가정 반찬 지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베트남 농촌개발 CSV 사업</li> <li>푸드뱅크</li> <li>CJ브리딩어</li> <li>건강 증진 제품(맛반 저단백질, BYO유산균 등) 개발</li> <li>식품첨가제를 뺀 제품 개발</li> <li>굿바이 아토피 캠페인 후원</li> <li>(재)식품안전상생협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베트남 농촌개발 CSV사업</li> <li>CJ-UNESCO Girl's Education</li> <li>CJ도너스캠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CJ-UNESCO Girl's Education</li> <li>CJ제일제당 인권선언</li> <li>가족친화기업 인증</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미네워터 바코드를 캠페인</li> <li>저탄소 고효율 사료 개발</li> <li>CJ브리딩어</li> </ul>
<b>7 AFFORDABLE AND CLEAN ENERGY</b> 에너지 접근 보장	<b>8 DECENT WORK AND ECONOMIC GROWTH</b> 경제성장 및 양질의 일자리	<b>9 INDUSTRY, INNOVATION AND INFRASTRUCTURE</b> 사회기반시설 구축 및 산업화 증진	<b>10 REDUCED INEQUALITIES</b> 불평등 완화산업화 증진	<b>11 SUSTAINABLE CITIES AND COMMUNITIES</b> 지속가능한 도시 조성	<b>12 RESPONSIBLE CONSUMPTION AND PRODUCTION</b> 지속가능한 소비 및 생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신재생에너지(발효대두박, 우드칩 등) 활용</li> <li>에너지혁신위원회 운영</li> <li>공정 개선을 통한 에너지 효율 증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베트남 농촌개발 CSV사업</li> <li>내일채움공제</li> <li>줄기운동형</li> <li>상생아카데미</li> <li>(재)식품안전상생협회</li> <li>CJ신소재 오픈 이노베이션</li> <li>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통한 임금격차 해소 운동* 공동 협약</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베트남 농촌개발 CSV사업</li> <li>상생아카데미</li> <li>CJ브리딩어</li> <li>연구개발 인력 및 투자 확대</li> <li>CJ신소재 오픈 이노베이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회적 약자 채용</li> <li>CJ제일제당 인권선언</li> <li>할랄푸드 개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문화재 돌보미 활동</li> <li>자원순환 사회공헌 활동(맛반 용기 재활용, 페크레파스 재활용)</li> <li>지속가능한 패키징</li> <li>폐기물 및 오염물질 배출 관리</li> <li>BIO 신소재를 활용한 나무 심기 활동</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베트남 농촌개발 CSV사업</li> <li>(재)식품안전상생협회</li> <li>친환경 발효 공법 개발</li> <li>지속가능한 패키징</li> <li>생산과정 시 발생하는 부산물의 자원화 활동</li> <li>공정 개선을 통한 에너지 효율 증대</li> <li>폐기물 및 오염물질 배출 관리</li> </ul>
<b>13 CLIMATE ACTION</b> 에너지 접근 보장	<b>14 LIFE BELOW WATER</b> 해양자원 보호	<b>15 LIFE ON LAND</b> 육상 생태계 보호	<b>16 PEACE, JUSTICE AND STRONG INSTITUTIONS</b> 평화롭고 포용적인 사회 촉진	<b>17 PARTNERSHIPS FOR THE GOALS</b> 글로벌 파트너십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속가능한 패키징</li> <li>저탄소 고효율 사료 개발</li> <li>신재생에너지(발효대두박, 우드칩 등) 활용</li> <li>에너지혁신위원회 운영</li> <li>공정 개선을 통한 에너지 효율 증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저탄소 고효율 사료 개발</li> <li>미네워터 바코드를 캠페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저탄소 고효율 사료 개발</li> <li>미네워터 바코드를 캠페인</li> <li>CJ브리딩어</li> <li>생산과정 시 발생하는 부산물의 자원화 활동</li> <li>지속가능한 식품 원료 구매 (RSPO 필요일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임직원 및 협력사 대상 지속가능 경영 교육</li> <li>UNGC 가입</li> <li>CJ제일제당 인권선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베트남 농촌개발 CSV사업</li> <li>CJ-UNESCO Girl's Education</li> <li>UNGC 가입</li> <li>UN SDGs 이행</li> </ul>	



### 사료용 아미노산으로 세상을 바꾸다

CJ 제일제당의 아미노산 핵심기술을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목표를 달성하고 환경, 식량, 바이오산업에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으로 2016년 국내 기업 최초로 UN의 SDGs 우수개발협력모델 및 SDGs 2번과 17번 목표에 대한 SMART 인증을 받았습니다.

### 혁신을 거듭한 CJ 제일제당의 BIO 아미노산

아미노산은 인간을 비롯해 지구상 모든 생물의 몸을 구성하는 단백질의 기본 요소입니다. CJ 제일제당은 개발도상국의 소득수준 향상에 따라 전 세계의 육류소비량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육류 생산을 위한 사료의 단백질 보충용 원료인 곡물 가격 역시 상승하는 것을 식량안보 위기와 축산업의 존폐 위기로 다가올 수 있음을 인지하였습니다. 끊임없이 단백질을 대체 및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한 결과 축산업에서 사용되는 사료용 아미노산의 혁신과 기술개발을 통해 친환경 미생물 발효 기술 확보하여 세계 최초로 5대

사료용 필수 아미노산 (트립토판, 쓰레오닌, 메치오닌, 라이신, 발린)을 생산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2015년 세계 최초로 친환경 바이오 발효공법을 기반으로 자연의 원재료를 메치오닌을 생산 및 판매하기 시작하였고,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을 다시 비료로 활용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이러한 지속적인 혁신활동을 통해 CJ 제일제당은 세계 식품 및 축산업과 환경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라이신(L-Lysine HCl) 1 톤은 33 톤 규모의 대두박(기름을 짜고 나온 콩의 부산물)을 절약할 수 있어 전세계 라이신 사용량(2015년 기준 220만 톤)으로 보면 연간 7,300만 톤의 대두박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이는 콩 경작지를 옥수수 등 다른 곡물의 경작지로 활용할 수 있게 도와 인류 기아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CJ 제일제당은 언제나 생산부터 소비까지 전 프로세스에서 지속가능성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미노산의 경우 생산단계에서는 기존 석유화학 공법 대신 발효공법을 기반 및 자연의 원재료를 생산하며 나아가 원재료의 재활용(밀짚, 옥수수대, 사탕수수 찌꺼기 등)으로 환경에의 영향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축의 소비단계에서는 사료용 아미노산의 활용을 통해 가축의 질소배설물을 줄일 수 있게 도와 약 20~30%의 질소 배설물 감소 효과를 가져오며 이는 환경오염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CJ 제일제당은 아시아 지역의 선도 바이오 기업으로서 '지구 경작지의 효율적 활용과 기아해결', '축산업으로 인한 환경오염 예방', '아시아 지역의 바이오 개발협력' 등의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아시아 지역의 각국 정부와 사업적·기술적 협력 체계를 구축해 선진 축산문화를 확대하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과 아시아 전역에 고품질의 아미노산을 공급할 계획으로 이는 아시아 환경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이러한 활동으로 국제사회와 더불어 기술 개발과 R&D 역량을 제고하고, 지속가능한 환경 보존 및 식량 생산 방안을 만들고자 합니다.



### 공유가치 창출을 통한 상생 생태계 조성

CJ 제일제당은 산업 생태계의 중요성을 전사 차원에서 관리하여 중장기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상생 발전을 진정성 있게 실천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업 생태계의 전반적인 역량 향상이 곧 당사의 성장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적 체계를 공고히 다지고 있습니다. 이에 협력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자금, 기술, 교육지원과 더불어 당사 대표 상생발전 프로그램인 즐거운 동행을 통하여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즐거운 동행 '미정'

CJ 제일제당은 대한민국의 건강한 식품산업생태계를 조성하고자 경쟁력 있는 협력사를 발굴하여 상황에 따라 필요 자금, 역량, 판로를 지원하여 지속가능한 성장 기회를 제공하는 동반성장 플랫폼인 '즐거운 동행'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협력사에는 성장의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당사는 제품 포트폴리오를 강화하고 매출을 확대함으로써 공유가치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즐거운 동행 플랫폼으로 성장한 '미정'은 면류, 떡류 제품을 생산하는 협력사입니다.

즐거운 동행을 통하여 기존의 저가형 떡류 제품을 탈피한 신시장을 개척하였으며, 소스를 자체 생산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추어 시장점유 및 신 매출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미정'은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상생모델 성공사례로, 현재는 협력사 자체브랜딩 지원까지 진행하여 사업을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해당

협력중소기업의 매출 증대와 더불어, 사업확장에 따라 내일채움공제<sup>1</sup> 제도 등을 통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지역사회에 기여하였습니다.



### 국민 건강식생활 증진

‘건강과 웰빙’, ‘지속가능한 환경’, ‘사회와의 상생’이라는 핵심 공유가치를 바탕으로 CJ 제일제당이 가장 잘 할 수 있고 사회적 관심이 필요한 영역에서 더불어 사는 사회를 구현하고자 ‘국민 건강식생활 증진’, ‘지역사회의 환경 생태계 보존’ 그리고 ‘청소년 꿈 실현’을 목표로 사회공헌 활동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 중 식품안전과 영양이라는 당사 핵심 역량을 활용하여 취약계층의 식생활과 건강 개선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 미혼 한부모 가정 반찬 지원 - 찬찬찬 프로젝트



미혼 한부모 가정에 대한 국내 연구 및 조사 결과에 따르면 낮은 소득과 사회의 부정적인 인식 때문에 육아와 직장생활을 병행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CJ 제일제당은 업과 연계하여 가장 잘 할 수 있고, 사회적 관심이 필요한 영역에서 공유가치를 창출하기 위하여 항상 고민합니다.

이에 2018년 CJ 나눔재단은 청소년 미혼 한부모 가정의 자립과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CJ 헬로드림을 런칭하였으며, 당사는 사회공헌 원칙인 임직원 참여를 기반으로 한 ‘찬찬찬 프로젝트’를 기획·시행하였습니다. 임직원이 자사 제품을 활용해 반찬을 만들어 미혼 한부모 가정에 전달하는 프로젝트로, 메뉴 선정 시 당사 소속 셰프들이 보관 용이성 및 영양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개발하는 등 회사의 역량을 활용하였습니다. 2018년에는 총 6회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회당 100명의 미혼 한부모에 반찬 2종을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작년 11월 ‘청소년 미혼한부모 지원’을 통해 CJ 나눔재단은 여성가족부장관상을 수상하며 사회적 기여를 인정받기도 하였습니다. CJ 제일제당은 본 프로젝트가 일회성 행사가 아닌 더욱 진정성 있는 사회공헌 활동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향후에는 반찬 메뉴를 다양화하고 수혜 지역을 확대하는 등 더 많은 가정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sup>1</sup> 내일채움공제: 장기재직이 필요한 핵심인력에 대해 기업 및 임직원에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

### 3. 참여 중인 글로벌 이니셔티브



지속가능한 팜유조달 Roundtable on Sustainable Palm Oil, RSPO

자세히 보기

About these SDGs goals

**SDGs 세부목표 1.2는**  
**2030년까지 국가별 정의에 따라 모든 측면에서 전 연령층의 남녀 및 아동 빈곤 인구 비율을 최소한 절반으로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1**  
NO  
POVERTY

50%

**1.2**

2030년까지 국가별 정의에 따라 모든 측면에서 전 연령층의 남·여 및 아동 빈곤 인구 비율을 최소한 절반으로 감축한다.

The Global Goals

SDGs 세부목표 1.2는 모든 남녀 및 아동 빈곤인구 비율의 절반 감축을 목표로 합니다.

세계사회개발정상회담(WSSD, 1995)에서는 극빈층에 해당하는 전세계 인구가 10억 명이 넘는 점을 지적하며 대다수가 아프리카와 최빈국에 거주하는 여성이라 밝혔습니다. 세계 인구가 날로 증가하는 점을 감안하여, 가난과 성 불평등의 관계는 정부, 개인, 자연환경의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해결해야 할 난제임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MDGs에서는 1번 목표를 빈곤과 기아 종식으로 설정하며, 세부 목표 중 하나로 절대빈곤인구의 절반 감축으로 지정하였습니다. 한편, MDGs의 채택(2000) 이후, 유니세프(UNICEF)에서 발간한 '위험에 처한 아동' 보고서(2005)에서는 아동빈곤 인구의 심각성을 상기시켰습니다. 동 보고서는 전세계 20억 아동인구의 절반에 달하는 아동이 빈곤인구에 해당된다는 점을 지적하며, MDGs 목표에 포함되지 않은 아동 빈곤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SDGs에서는 절대빈곤 인구의 종식이라는 목표에 이어서, 성 차별을 감안하여, 남녀 빈곤인구 감축뿐 아니라 아동인구 절반 감축을 추진합니다.

**SDGs 세부목표 2.1은**  
**기아를 근절하고, 영유아를 포함한 모든 사람, 특히 빈곤층과 취약한 상황에 처한 사람에게 일년 내내 안전하고 영양가 있고 충분한 식량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2**  
ZERO  
HUNGER

**2.1**

2030년까지 기아를 종식하고, 빈곤층과 취약계층, 영유아를 포함한 모든 사람에게 일년 내내 안전하고, 영양가 있는 충분한 식량에 대한 접근을 보장한다.

The Global Goals

SDGs 세부목표 2.1은 기아 종식 및 충분한 식량에 대한 모든 사람의 접근 보장을 목표로 합니다.

유엔식량농업기구(FAO)의 헌장(1945)은 모든 사람이 적절한 수준의 삶의 질을 영위하고, 영양을 공급받도록 국가에서 보장해야 함을 명시했습니다. FAO에서는 세계 2차 대전 종결 이후, 1960-1961년에 전쟁 전보다 더 높은 수준의 식량 생산이 가능해지면서 잉여 식량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활동의 일환으로 FAO에서는 1961년부터 '기아로부터의 자유'(Freedom from Hunger) 캠페인을 진행하여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발전 격차를 줄이고 잉여 식량을 제공하여 최빈국의 경제 성장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어 FAO 사무총장은 식량 원조를 통한 개발도상국의 경제·사회 발전과 기아 종식을 위해 세계식량계획(WFP)의 설립을 제안했고, 1961년에 WFP가 공식 발족되었습니다. WFP는 2012년부터 반기문 사무총장의 제안 하에 제로 헝거 챌린지(Zero Hunger Challenge)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SDGs 세부목표 3.4는

**2030년까지 예방과 치료를 통해 비감염성 질환으로 인한 조기 사망을 3분의 1로 줄이고, 정신 건강과 웰빙을 증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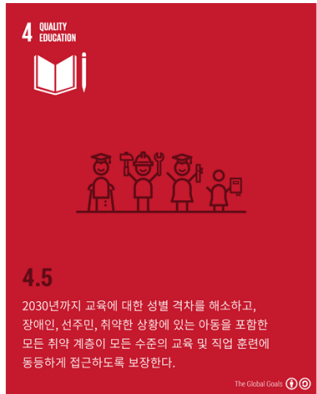
SDGs 세부목표 3.4는 비감염성 질환으로 인한 조기사망을 3분의 1로 줄이고, 정신건강과 웰빙 증진을 목표로 합니다.

비감염성 질환에 대한 관심은 영양에 대한 국제회의(ICN)에서 처음 논의되었습니다. 동 회의에서 채택한 '영양에 관한 세계 선언 및 행동계획(1992)'에서는 건강하지 않은 생활 양식과 부적절한 식단으로 인한 비감염성 질환을 언급했습니다. 풍요와 도시화로 인한 지방, 알코올, 나트륨의 과다섭취, 운동 감소, 스트레스 증가가 맞물려 비감염성 질환이 다수의 국가에서 만연하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보고서(WHO, 2013)에서는 심장계 질환, 암, 만성 호흡기 질환 및 당뇨병과 같은 비감염성 질환을 전세계 주요 사망 원인으로 제기했고, 비감염성 질환으로 인한 사망이 전세계 사망의 63%를 차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 중, 조기사망에 포함되는 30~70세 사이의 1천4백만 명의 사람들은 비감염 질환으로 인해 사망했습니다. 이에, SDGs에서는 감염성 질환에 더해 비감염성 질환으로 인한 사망 감소를 추진합니다.



### SDGs 세부목표 4.5는

**모든 취약 계층이 모든 수준의 교육 및 직업 훈련에 동등하게 접근하도록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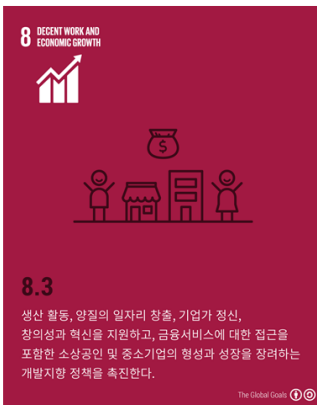
SDGs 세부목표 4.5는 교육에 대한 성별 격차 해소 및 모든 취약 계층의 교육에 대한 접근 보장을 목표로 합니다.

1972년 유엔총회에서는 여성과 남성의 평등 촉진, 세계 발전 노력에 여성의 완전한 통합, 세계평화에 대한 여성의 기여 증대를 위해 1975년을 세계 여성의 해로 선언하며, 1976년부터 1985년까지를 '여성을 위한 유엔 10개년'으로 지정하였습니다. 1986년 나이로비에서 개최된 '여성을 위한 유엔 10년 검토 및 평가 회의'와 1995년 회의에서 채택한 '베이징 선언'에서는 교육에서 여성에 대한 차별 해소를 명시했습니다. 성차별 철폐는 EFA 목표 5번, MDGs 목표 3번에 포함되어 2000년부터 유엔 여아교육 이니셔티브(UNGEI)의 주도 하에 추진되었고, 유네스코에서 취약 계층 및 개도국의 전문, 직업 교육 및 훈련(Technical and Vocation Education and Training)과 기술 개발(Skills Development)을 진행중입니다. 이에 SDGs에서도 함께 추진 중에 있습니다.



### SDGs 세부목표 8.3은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형성과 성장을 장려하는 개발지향 정책의 촉진을 목표로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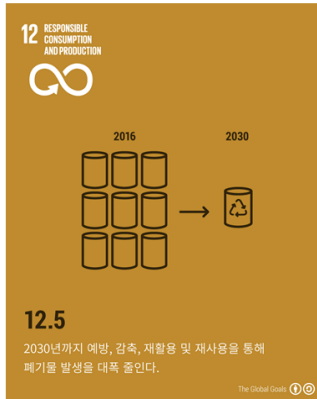


SDGs 세부목표 8.3은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형성과 성장을 장려하는 개발지향 정책의 촉진을 목표로 합니다.

국제노동기구(ILO)는 사회 정의 구현이 바탕이 될 때 보편적이고 지속적인 평화를 이룰 수 있다는 목표 하에 정의롭지 못한 노동 환경을 바로잡고 사회 정의 구현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ILO 발족 이후 개최된 국제노동회의(1998)에서 중소기업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권고사항을 채택하였고, 2002년에는 중소기업 발전을 통한 고용 창출 프로그램(IFP/SEED)을 발족시켰습니다. ILO에서는 중소기업(SMEs) 활성화 뿐만 아니라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MSMES)의 성장을 추구하는 지속가능한 기업 프로그램을 2009년 발족하였습니다. SDGs에서는 ILO의 설립 목표인 양질의 일자리 창출, 생산활동, 창의성과 혁신지원에 더불어 MSMES의 성장을 장려하는 개발 지향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SDGs 세부목표 12.5는

2030년까지 예방, 감축, 재활용 및 재사용을 통해 폐기물 발생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 1992)는 환경 및 개발에 대해 통합적이고 더 큰 관심을 갖는 것이 모두를 위한 기본적 욕구의 충족, 생활 수준의 개선, 적절한 생태계의 보호와 관리 및 번영하는 미래를 이룰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특히, 동 회의는 각국 정부가 산업, 가정 및 시민과 함께 쓰레기 및 폐기물 발생 감축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산업 공정 및 소비 단계에서의 쓰레기 재활용 및 재사용을 장려하고, 제품의 과도한 포장을 줄이며, 친환경 제품을 도입할 것을 권장했습니다. 더 나아가, 유엔환경계획(UNEP)은 폐기물에 대한 많은 문서들이 대체로 선진국을 대상으로 하므로 개도국의 상황에도 적용할 수 있는 '고형 폐기물 관리(Solid Waste Management, 2005)'를 발간했습니다. 동 문서에서는 국가적 차원에서는 제품이나 포장 재설계, 소비자 인식 증진, 폐기물에 대한 생산자 책임 고취를, 지역적 차원에서는 혼합된 폐기물로부터 자재 회수, 제품 포장 재설계에 관한 법률 제정 요구, 쓰레기를 가정 비료로 이용하는 등 쓰레기 감축에 힘쓸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에 SDGs도 재활용 및 재사용을 위한 폐기물 감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SDGs 세부목표 17.16은

개발도상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의 SDGs 달성 지원, 그리고 지식, 전문성, 기술 및 재원을 공유하는 글로벌 파트너십의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SDGs 세부목표 17.16은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과 다양한 이해관계자 파트너십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글로벌 파트너십은 유엔의 개발의제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이행체계로서 유엔 새천년 정상회의(2000)에서 처음 대두되었습니다. 이에 기반하여 '개발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구축(Global Partnership for Development)'이 새 천년개발목표(MDGs)의 목표로 제시되었습니다. 2005년 유엔 세계정상회의(2005 World Summit)에서는 민간 부문, 비정부기구, 시민사회를 비롯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빈곤퇴치와 개발에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을 인식하고, 개발협력 주체 간의 파트너십 구축을 강조하였습니다. Post-2015 개발의제의 이행 역시 단일 국가를 넘어선 민간기업, 시민사회, 의회, 재단 등 다양한 주체들로 구성된 다중 이해관계자의 참여가 절대적입니다. 유엔지속가능발전회의(UNCSD, 2012)의 결과문서에 이어 채택된 유엔 총회 결의안 '글로벌 파트너십을 향하여(2014)'는 지식과 기술, 재원을 공유하고 동원할 수 있는 이해관계자들 간의 파트너십을 개발도상국의 Post-2015 개발의제 달성을 위한 국제적 협력의 견인차로 보고, 국가의 역량과 필요, 개발 우선순위를 반영하는 파트너십을 구축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 3. [SDG 미디어 존] 빈곤 해결을 위한 Hand in Hand 이니셔티브

- 취 동유(Qu Dongyu) 세계식량농업기구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사무총장



〈우측 세계식량농업기구 사무총장 취 동유(Qu Dongyu)〉

유엔글로벌콤팩트는 2020년 1월 21일부터 3일간 개최된 다보스 포럼에서 유엔글로벌콤팩트 창립 20주년 기념 SDG 미디어 존을 운영했습니다. 약 3,000여 명의 전 세계 비즈니스 리더들, 정부 및 유엔 지도자, 혁신가 및 사회활동가들이 참석한 이번 포럼에서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2번 목표인 빈곤 탈출 목표의 달성을 위한 방안과 세계식량농업기구에서 새롭게 발족한 Hand in Hand 이니셔티브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는 매회 뉴스레터에 SDG 미디어 존에서 다뤄진 각 주제별 토크의 내용을 정리하여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번 토크에는 취 동유(Qu Dongyu) 세계식량농업기구 (FAO: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사무총장이 참여했습니다. 취 사무총장은 특히 SDGs의 2번 목표 'Zero Hunger'에 초점을 맞춰 **빈곤과 식량부족 문제의 해결을 위한 세계식량농업기구의 목표와 문제 해결 방안의 일원인 Hand in Hand 이니셔티브**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빈곤 해결을 위한 세계식량농업기구의 목표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취 총장은 “지금도 식량 부족에 허덕이고 있는 8억에 가까운 인구를 구호하고, 영양실조로 고통받는 20억 인구를 빈곤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그는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는데 있어 소외되는 사람이 없어야 한다. 그러나 아직 우리의 노력이 충분한 발전을 이끌어 내지는 못했다”고 덧붙였습니다.

“FAO에서 새롭게 출범한 Hand in Hand는 어떤 이니셔티브인가?”라는 질문에 취 총장은 “개발도상국, 특히 시골과 같은 소외된 지역에서 힘들게 살고 있는 사람들을 돕기 위한 이니셔티브다. 효율적인 자원 활용과 최대한의 노력 그리고 투자를 통해 해당 지역 주민들의 삶을 개선시키기 위한 일을 하고 있다. 또한, 식량 공급에서도 균형잡힌 영양분을 담고있는 음식과 그러한 식량에 대한 주민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을 찾고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추가적으로 “구체적인 실현을 위해서는 197개의 FAO 회원국, 금융기관과 같은 국제적 집단, 민간 부문, 학계 그리고 시민 사회 총 5개 집단의 협동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민간부문에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는가?”라는 마지막 질문에 “지금도 계속 민간기관과 기업과의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많은 CEO 들과 만나고 있다. 영향력이 큰 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을 일정수준 공유하고, 빈곤 문제의 해결을 위한 끊임없는 컨설팅 활동 등을 통해, 문제 해결의 정도를 더 가속화 할 필요가 있다. 2030년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턱없이 부족하다”라는 충고의 말을 남겼습니다.

[자세히 보기](#)

# UNGC 회원뉴스

## 1. SH 공사, 유엔글로벌콤팩트 가입...사회적책임·윤리경영 강화



- 서울주택도시공사(SH 공사, 사장 김세용)는 글로벌 기준에 입각한 사회적책임 및 윤리경영 강화 목적으로 유엔글로벌콤팩트(UNGC)에 가입함
- 유엔글로벌콤팩트(UNGC)는 지난 2000년 7월 발족 이래 전세계 160개국 1만 4000여 회원을 보유한 UN 산하 세계 최대 자발적 기업시민 단체로,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 분야 10대 원칙을 기업의 경영전략에 내재화하여 사회적 책임 및 지속가능성 제고를 목적으로 함
- 김세용 SH 공사 사장은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지난 30년 동안 30만호가 넘는 주택을 공급하는 등 서울시민의 주거복지를 향상해 UN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에 기여하고 있다"며 "이번 유엔글로벌콤팩트 가입을 계기로 기업의 경영전략에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 분야 10대 원칙을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할 것"이라 밝힘
- 박석범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사무총장은 "UNGC 가입이 SH 공사의 지속가능성 향상에 촉매제가 되기를 바란다"며 "이를 계기로 공사가 더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고 의미 있는 사회적 가치를 창출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소감을 남김

뉴스

## 2. 태양광·풍력·연료전지...신재생에너지 중심에 선 한수원



- 한국수력원자력이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나서며 2030년까지 원자력발전 6기에 맞먹는 총 8.4GW 규모의 신재생 설비를 확보한다는 목표를 수립했음
- 지난해 한수원은 태양광설비 13.3MW를 준공했고, 전체 설비는 41.3MW에 달하며, '주민참여형 발전'을 통해 발전소 운영수익을 지역사회와 공유하는 '새만금 수상 태양광' 프로젝트를 진행 중임
- 한수원은 현대차와 함께 전기차 폐배터리 재활용 사업도 추진 중으로, 한수원은 오는 2030년까지 3GWh 규모의 '폐배터리 재활용 에너지저장장치(ESS)'를 보급할 계획임
- 한수원 관계자는 "발전용 연료전지는 '친환경 도심형 분산전원'으로 주목받고 있다"며 연료전지 사업을 선도하면서 축적한 경험으로 한수원은 연료전지 세계시장 1위를 목표로 하는 정부의 '수소경제 활성화' 정책에 적극 기여하겠다"고 밝힘

파이낸셜뉴스

### 3. SK 가스, 지속가능경영위원회 설치… 글로벌 표준 경영 강화



- 31 일, SK 가스는 이사회에서 사우디아라비아 가스화학 사업에 진출하는 등 글로벌 사업을 확대함에 따라 이에 걸맞은 글로벌 표준 경영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해 '기업지배구조헌장'을 제정하고 산하에 '지속가능경영위원회'를 설치했다고 밝힘
- 이를 위해 SK 가스는 지난해부터 외부 컨설팅을 통해 환경·사회·지배구조(ESG) 등의 경영요소에 대한 진단과 개선 활동을 진행해 옴
- SK 가스는 지난 2 월 유엔글로벌콤팩트(UNGC)에 가입해 인권·환경 등 10 대 원칙을 준수하고 국제연합(UN)이 추구하는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달성을 위한 노력에 동참하기로 했음
- SK 가스 관계자는 “가스화학, 발전 등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하고 해외 진출을 본격화함에 따라 이해관계자들도 늘어나고 있다”며 “이들의 요구에 맞춰 회사 경영시스템을 글로벌 표준화하고 효과적인 소통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함

서울경제

#### 4. 중부발전, 음식물쓰레기 활용한 친환경 재생에너지 개발나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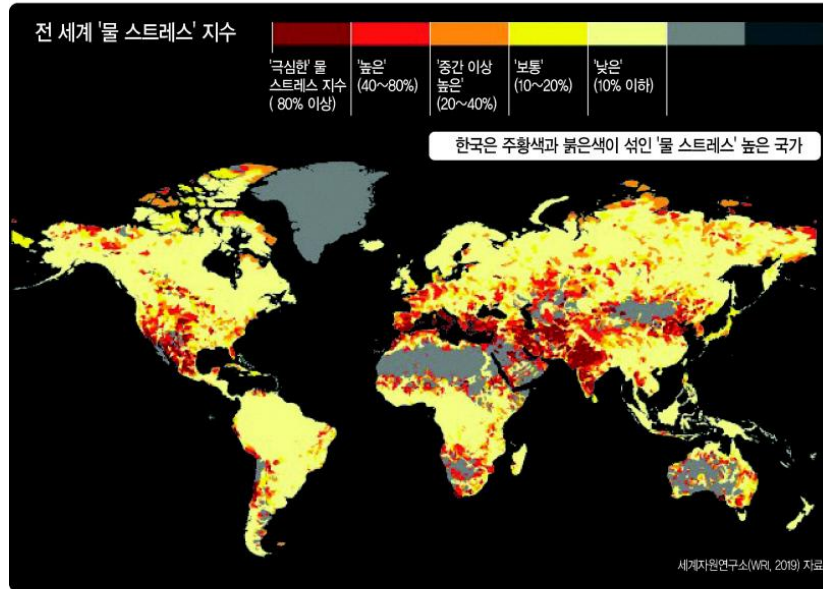
- 한국중부발전이 음식물 쓰레기를 활용한 석탄 대체 친환경 재생에너지 개발에 나설 예정임
- 지난 3월 19일 중부발전은 김포시 시설관리공단,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동 협력사업 업무협약(MOU)을 체결함
- 이번 업무협약은 적체된 사료를 활용한 고품질 바이오차 고품형 연료를 생산과 이를 이용한 바이오가스 발전, 그린 수소생산 기술 개발을 목표로 함
- 박형구 중부발전 사장은 "건설기술연구원의 탈염기술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지역 현안 사항인 음식물 쓰레기 문제 해결과 청정에너지 확보의 가시적 성과 창출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함

뉴시스

# CSR 뉴스

## 1. '물 쓰듯' 하는 한국... 10년 후 서울은 물 기근 도시

▼ 인구 25%의 17개국이 '극심한' 물 스트레스 상태



▼ 한국인의 물 사용량

1인당 하루 물 사용량 : **287ℓ** → 세계에서 **3번째**로 물 많이 사용하는 국가

환경부 '상수도 통계 (2016년 기준) 자료

- 지난 3월 22일이었던 '세계 물의 날'은 국제연합(UN)이 제정한 날로, 올해는 '물과 기후변화'가 핵심 주제로 선정됨
- '물을 물 쓰듯'하는 한국은 세계자원연구소가 공개한 자료에서 '물 스트레스' 지수가 높다고 주목한 국가임
- 세계자원연구소는 오는 2030년 45개 대도시에서 4억 7000만명의 인구가 물 부족을 겪게 된다는 비극적 전망을 내놓고 있으며, 한국의 서울이 포함돼 있음
- 유엔에 따르면, 물 스트레스 문제는 식량안보의 가장 큰 위협 요소이며, 기후위기로 물 스트레스가 더욱 높아지면서 식량 생산량이 크게 감소돼 식량안보를 위협할 것으로 분석함
- 임형준 유엔세계식량계획 한국사무소장은 "물과 식량은 뗄 수 없는 중요한 생존 조건이다. 식량 위기에 직면한 세계 곳곳에서 물 부족은 농업 생산성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며 "아울러 인류 건강을 위해서도 수질 관리는 매우 중요하다"고 전함

## 2. 한부모노동자 육아휴직 급여 인상...통상임금 100% 반영



- 3월 31일부터 한부모 노동자도 육아휴직 첫 3개월동안 통상임금의 100%에 해당하는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음
- 고용부 관계자는 “한부모 노동자가 홀로 가계를 부양하는 경우가 많아 육아휴직을 하면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컸다”며 “이번 제도 개선으로 한부모 노동자가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고 육아휴직을 활용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힘
- 정부는 노동자가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직한 경우에는 육아휴직 급여 사후 지급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등 육아휴직제도를 개선함
- 이는 현장에서 제기된 한부모 육아휴직 제도에 대한 요구사항을 반영한 조치임
- 고용부는 제도 개선으로 육아휴직 기간 중 사업주의 부담은 줄고, 노동자는 눈치보지 않고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음



### 3. EU '원전' 지속가능한 금융에서 제외



- 지난 9 일, 유럽연합의 지속가능금융 분류체계를 만드는 전문가 기술작업반은 '지속가능 금융 분류체계 최종 보고서'를 발표함
- 보고서는 “원전이 환경목표 중 하나인 ‘기후변화 감축’에 기여하는 부분은 인정되나 핵폐기물, 방사능 오염 등의 문제로 ‘중대한 피해를 발생시키지 않는 활동’이라 할 수 없으므로 분류체계에 포함시킬 수 없다”고 명시함
- 이로써 유럽연합에서 1 년 넘게 논의된 지속가능한 금융 대상에서 원자력은 최종 제외될 것으로 보임
- 에너지전환포럼의 양이원양 사무처장은 “유럽연합의 지속가능금융 대상에서 원전이 제외되면서 경제성을 확보하지 못한 신규 원전건설 프로젝트가 취소되고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원전시장이 더 축소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평가함

#### 4. “무급휴직에 권고사직도”…코로나 19 여파로 노동상담 잇따라



- 코로나 19의 여파가 중소기업에까지 미치면서 무급휴직이나 강제연차는 물론 권고사직까지 당하는 노동자들이 나오고 있음
- 18일, 민주노총 인천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중순부터 이달 13일까지 인천본부 산하 노동법률상담소 3곳에 코로나 19 관련 상담 30여건이 접수되었으며, 이중 절반인 15건은 사업장 매출 감소로 인한 무급휴가나 무급휴직에 들어갔음
- 사측이 연차를 소진하라며 강요하거나 해고나 권고사직을 했다는 고충 상담도 있었는데, 특히 항공사 케이터링을 맡는 한 하청업체에서는 직원 100여명 가운데 3분의 1가량이 권고사직을 당한 것으로 파악됨
- 노동상담소 측은 대부분 한 사업장에서 여러 문제가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어 근로자들에게 미칠 영향이 더욱 크다고 밝힘

연합뉴스

# 회원사 안내

## 1. 신규가입회원

3월 15일부터 4월 1일까지 UNGC에 가입한 회원사는 1 곳입니다.

- SK 가스

## 2. COP/COE 제출회원

3월 15일부터 4월 1일까지 5 개 회원사가 COP 및 COE 를 제출했습니다.

- 세계청소년문화재단
- 바이오제네틱스
- 한국국토정보공사
- 한국기업지배구조원
- (사)한국노숙인복지시설협회

미제출 회원사는 제출기한으로부터 1 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제명될 위험이 있사오니 빠른 시일 내에 COP/COE 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하시는 기업/기관은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사무처로 발간본을 송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회원사는 가입일로부터 1 년 이내에 첫 COP 를 제출하고, 이후 매년 COP 를 제출해야 합니다. 비영리 회원 역시 가입일로부터 2 년 이내에 첫 COE 를 제출하고, 이후 매 2 년마다 COE 를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일까지 미제출 시, 미보고(Non-communicating)기업으로 분류되며, 이후 1 년 후에도 COP/COE 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유엔글로벌콤팩트 회원리스트에서 제명(De-listing)됩니다. 이에 따라 COP/COE 제출일을 지켜주시고, 제출일에 대해 안내가 필요한 회원사는 한국협회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 3. 2019 년도 연회비 미납 회원사 안내

#### <19 년도 연회비 미납 회원사>

경기도시공사, 한국남부발전, BGF 리테일, 한국조폐공사, 한국연구재단, 구미시청, 울산광역시 남구청, 경상북도종합자원봉사센터, 한국벤처투자, 국립공원관리공단, 안산도시공사, 안양도시공사, 극지연구소, 카라반이엑스, 한국전자인증, 리인터내셔널, 마콜컨설팅그룹, 동명전기, 바이오제네틱스, 제니컴, 디씨티오토, 비엘에치아쿠아텍, 제주관광공사, 미술등록협회,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카이스트경영대학, 신한대학교, 늘푸른직업재활원, 환경실천연합회, 열반유스아카데미, 한국품질재단, 사회복지법인열매나눔재단, 케이티에스테이트, 롯데제과, 서스틴베스트, 나인, 델타이엔씨, 원광대학교, 전라남도청소년수련원, LG 디스플레이, SK 주식회사, 스완커뮤니케이션, 씨엔커뮤니케이션, ㈜에프엠비디, 고려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진해장애인복지관, UNITAR 제주국제연수센터, (사)동서남북모바일커뮤니티,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나노기술원, 신용보증기금, 현대엘레베이터, 부영, SK 건설, 현대건설, 현대엔지니어링, LS 전선, 한국전력공사, 서울시농수산물공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1-2 분기 연회비 납부 해당 회원사(매출액 USD 5,000 만 달러 이상 기업)>

KEB 하나은행, 케이티, LG 화학, 신한은행, 두산중공업, GS 칼텍스, GS 건설, 한국수력원자력, 한국타이어, SK 텔레콤, 미래에셋대우, 두산인프라코어, 롯데쇼핑, 한국남동발전, 영원무역, 한국석유공사, LS 산전, 휴맥스, 한국동서발전, 비씨카드, 한전 KPS, 서울주택도시공사, 한국공항공사, 롯데홈쇼핑, 주택도시보증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광물자원공사, 케이티하이텔, 한국감정원, 인천시설공단, 한국가스공사, KB 국민은행, 한화솔루션, CJ 대한통운, SK 하이닉스, KDB 산업은행, 포스코, 대한항공, 한국마사회, 유한킴벌리, 한국중부발전, 한국수자원공사, 한국거래소, 한전 KDN, 한전산업개발, NS 쇼핑, 부방, 테크로스, JB 금융지주, 성남도시개발공사

#### <1-2 분기 연회비 납부 해당 회원사 (SME, 공공기관 및 비영리기관)>

유니베라, 대덕섬유, 테라컨설팅그룹, 씨사이드코리아, 엠와이소셜컴퍼니, 이알엠코리아(주),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사람과세계경영학회, 한국자유총연맹, 충북대학교, 국제뇌교육협회(사), (사)부패방지국민운동총연합, (사)한국산업단지경영자연합회, 산업정책연구원, 환경재단, 한국도자재단, 세계청소년문화재단, (사)내부장애인협회, 컨선월드와이드 한국재단,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at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예탁결제원, 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근로복지공단, 한국환경공단, 한국국제협력단-코이카, 해양환경공단,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기상산업기술원, 서울특별시, 성동구도시관리공단, 천안시시설관리공단, 부산경제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서울산업진흥원, 경기신용보증재단

2019 년부터 시작된 UNGC 글로벌 연회비 정책의 변화로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회원사는 본부 및 협회의 회원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연회비 납부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사무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연회비 납부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사무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사무처

T. 02-749-2149

Email [gckorea@globalcompact.kr](mailto:gckorea@globalcompact.kr)

#### 4. UNGC 로고 사용정책

유엔글로벌콤팩트는 회원과 이해관계자가 유엔글로벌콤팩트와 10대 원칙을 널리 알리고 이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도록 장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목표 하에 유엔글로벌콤팩트 본부에서는 유엔글로벌콤팩트 회원에 한하여 “We support the Global Compact” 로고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로고 사용 허가 요청을 위해서는 다음의 세가지 상태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유엔글로벌콤팩트 회원이며, COP/COE 가 active 인 상태
- 기업의 연간 총 수익에 따라 연회비를 납부하는 참여레벨을 선택한 단체
- COE 를 제출한 비영리 단체



“Communication on Progress the Global Compact” 로고는 COP 를 작성하는 회원이라면 유엔글로벌콤팩트 본부의 사전 허가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는 로고의 사용을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 5. 한국협회 가입 안내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는 유엔글로벌콤팩트의 한국 내 이행과 확산을 위한 세계 네트워크의 한국 대표기관입니다. 회원사는 한국협회 참여를 통해 회원 브랜드 가치 전파 및 경영 효율성을 제고할 뿐만 아니라, 회원사 간 상호 교류 및 지식 공유의 장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기관은 사무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참여 방법 및 참여 혜택 바로가기](#)

기업 정보 및 담당자 변경시 아래와 같이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UNGC 본부 사이트([www.unglobalcompact.org](http://www.unglobalcompact.org))에서 관련 정보를 변경해 주시기 바랍니다.
2. UNGC 한국협회 사무처에 변경된 사항에 대해 연락(메일/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89 순화빌딩 10 층

Tel: 02)749-2149/50 Fax: 02)749-2148

E-mail: [gckorea@globalcompact.kr](mailto:gckorea@globalcompact.kr) | Home: [www.unglobalcompact.kr](http://www.unglobalcompact.kr)

Blog: [http://blog.naver.com/ungc\\_korea](http://blog.naver.com/ungc_korea)

담당자: 이수란 과장/주임연구원